

영북농협, 농촌일손돕기 직접 나서

共同출하 · 공동선별 · 공동계산제 시책추진



지난달 20일 영북농협은 영북면 대화산리에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대화산리 작목반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3만 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순따주기, 줄 묶어주기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 20일 영북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영북면 대화산리에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대화산리 작목반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3만 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순따주기, 줄 묶어주기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 2005년 선정, 시범을 영하고 있는 유통형 작목반인 대화산 작목반은 토마토, 오이등을 주 생산품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토마토 작목반은 인근 관인농협

의 작목반원 3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포천시 전체 농협 작목반의 유통망을 하나로 결집시켜 통합 운영하는 구조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유통형작목반의 사업목적은 대영유통업체의 급증, 전자상거래 발달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조직으로서 유통작목반을 육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제를 실천히 토마토 작목반은 인근 관인농협

고 농가소득향상과 경쟁력제고, 유통형 작목반을 중심으로 작목반과 농협이 하나가 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선진작목반장 활동과 조직원들의 단합을 도모, 유통형 작목반으로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작목반으로 육성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생산(공동작업·공동출하·공동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공동출하에 의한 공동계산제란 여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여 선별한 후 다른 사람들의 농산물과 혼합, 일괄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이다.

2004년도부터 실시한 이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제가 경기도에서 6군데, 포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영북면 대화산리 작목반 한곳에 머물러 아직은 실천단계에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의 부족, 고비용으로 인

해 점점 농사짓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농가의 부족한 일손충당과 비용절감 효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제가 현재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 기대되는 농가수익은 한 가구당 700만원~4천만원선이다.

현재 대화산 농민 28가구, 관인면 농민 37가구 등 총 31여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로 인해 도움을 받은 대화산리 농민은 "일할 사람이 없던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농협에서 발벗고 나서서 일도 해주고 판매까지 책임져주니 큰 시름을 덜었다"고 기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포천시청 김광준 농축산과장, 이진수 농경제장, 김현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차장과 관인농협 이수기 조합장, 서순원 상무와 영북농협 직원 10명, 작목반원 33명을 비롯해 농가주부 모임, 고향주부모임, 부녀회원 30여명,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미경 주무부메기자단 영북면지부장

“지역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 6월4일 GOEUN 창사 15주년 기념식



GOEUN은 6월 5일 GOEUN 창사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4일 본사 사옥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GOEUN(설립자 최호열)은 6월5일 GOEUN 창사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4일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호열 GOEUN 설립자는 "15년 전 포천에 들어와 첫 사업을 시작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4개의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3개의 계열사를 두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성과는 "그동안 여러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년 근속자 고은종합전기(주) 전기명 차장이 근속기념패와 금반지를 선물로 받았고 7년 근속자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안병호 대표이사

가 상장 및 해외여행권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2부 체육행사로 실시한 축구대회에서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으며 2위는 고은기업(주), 3위는 고은종합전기(주)가 차지했다.

또 여직원들의 경기로 실시한 탁구대회는 박명희 부장이 우승, 2위는 고우리 사원이 차지해 상금을 받기도 했다.

GOEUN은 고은종합전기(주), 고은기업(주),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한국정보, 고은미술헌원, 규호미술학원과 포천신문사가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GOEUN은 지난 90년6월1일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설립 이후로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각 계열사 창립 등 사세를 확장시키고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체험하는 축산, 함께하는 축제 제2회 포천시 축산페스티벌 개최



제2회 포천시 축산페스티벌이 오는 18일 상정호수 피크닉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제1회 행사 때 모습.

우리 축산물 사랑 대잔치인 포천시 축산페스티벌이 "체험하는 축산, 함께하는 축제"를 모토로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천시 영북면 상정리 상정호수 피크닉장에서 개최된다.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식 품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포천시가 주최하고 (사)포천축산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주말을 맞아 산간관광객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축산인 등 모두 8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장 주무대에서는 관인면 중리초등학교 연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댄스경연대회와 우유마시기 대회, 계란먹기 대회,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 개막식, 축산퀴즈 및 홍보, 가수들의 노래공연과 관광객 및 축산인들의 노래자랑 등이 오후 6시까지 잇달아 펼쳐진다.

또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토끼고기, 각종 유기농품 시식

회와 송아지유 시음회가 마련되며, 어린 가족과 함께 사진 찍기, 소 부위별 냉장육 전시, 예쁜 돼지그림 그리기, 햄·소시지 만들기, 빗질로 계란꾸러미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송아지와 어린 돼지, 병아리, 토끼 등이 전시돼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축산농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축산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이번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야보호수와 임시보건을 운영하고, 행사장 안팎에 질서유지 전담요원을 대거 배치하는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최근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회, 포천축협, 상정호수관광지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포천시 축산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축산브랜드 홍보와 소비촉진, 축산과 관광의 연계 등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 축산인의 화합 등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솔모루 장수누릉닭

맛과 예술이 접목된 갤러리 음식점



대표 정금진

현대인의 삶의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외식문화도 여기에 걸맞게 차별화 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는 음식점들도 제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으로 고객들에게 분주한 입장이자.

솔모루 장수누릉닭(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64번지 대표: 정금진)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닭과 오리를 이용한 독특한 조리법으로 외식업에 자신있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솔모루 장수누릉닭의 원조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초가원"과 "진삼"으로 양념과 맛, 조리법은 이 곳과 동일하다. 정 대표의 친정 오빠가 안산에서 15년 정도 경영을 해오며 고객들로부터 전통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메뉴로 안산에서는 이름만 떠낸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처럼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오랜전통과 깊은 맛을 인정받고 있으며 화합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이 곳의 장점이자.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5백여 평의 밭에다 무기농법으로 재배한 고추, 상치 등 신선하고 깨끗한 야채를 고객들의 식단에 제공하고 있다.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2만 8천 원 이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수누릉닭을 메인메뉴로 정해놓고 있다. 10여가지의 천연양념 재료를 사용해 담백하고 쫄쫄한 맛은 먹어보아야 맛의 진수를 알 정도다.

사계절 제공되고 있는 생김치(겉절이), 동치미, 깍두기, 갓김치 등이 정갈하게 차려내어 맛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누룽 오리, 정반국수, 녹두빈대떡은 메뉴에 따라 독특한 맛을 자랑하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장수누릉닭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정선진

고급스러운 분위기, 정갈하고 담백한 음식 자랑 수준 높은 도자기 관람과 구매, 체험학습까지

요즘 웰빙음식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패턴에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인근에서 사육되고 있는 토종닭과 토종오리만을 엄선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부재료까지 최고만을 고집해 사용하고 있다.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2천여평의 쾌적한 정원과 넓은 주차공간(일시에 50대 주차)을 자랑하며 정문에 들어서서는 순간 이색적인 풍경이 찾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입구에 들어서면 도자기타일로 장식되어 있는 벽면이 눈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타일부터 결정유, 진사, 청자, 백자 및 도자벽화, 도조작품을 관람하며 도자기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양대 요업과에서 도예를 전공한 송병호 도예가가 빚어낸 수준급의 각종 가정용, 장식용, 산업용 도자기를 관람하며 취향에 맞는 도자기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처럼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가족모임, 직원회식,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도 손색이 없으며 전문가가 설명하는 도자기의 유래와 도자기 제작과정까지 관람할 수 있어 자녀들의 도자기 체험학습과 연인들의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사는 "뉴코아백화점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친절과 서비스는 몸에 배어있으며 고객이 만족할만한 모든 준비는 되어있다"며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며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음식맛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음식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임을 밝히고 있다.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실속 있는 가격, 품격 높은 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먹거리제공과 더불어 불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찾는 고객들에게 잊혀지지않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음식 맛을 제공하려는 정 대표의 굳은 의지와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모든 음식은 "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조리하고 있어 한번 찾으면 고객은 꼭 다시 찾는다고 귀담아고 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미리 예약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외식문화에 선두파인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담백한 맛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멋에 반해 찾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또한 고객 배려차원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정병방 기자 jpk61@paran.com



솔모루 장수누릉닭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닭과 오리를 이용한 독특한 조리법으로 외식업에 자신있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솔모루 장수누릉닭 메뉴=

- 장수누릉닭 : 2만 8천 원 · 정반국수 : 1만 원
- 누룽 오리 : 3만 5천 원 · 녹두빈대떡 : 1만 원

예약문의전화 031)543-8087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관련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

지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제출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료금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등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 등
- 원천징수
-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받게 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X 22%(주민세포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소득과 합

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납부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크롤러드릴 집진후드 작동상태 점검중 회전중인 비트에 협착

비 점검방법 불량으로 크롤러 드릴의 집진기는 엔진이 천공시 가동상태(약 2,000RPM)일 경우엔만 자동으로 작동되므로, 집진상태를 점검할 경우 엔진은 천공시 상태로 조종한 후 로테이션 레바를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이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비트와 집진자의 거리를 비껴시킨 상태에서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미실시 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 점검시 안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장비점검시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